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7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6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8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 준공
- 인천항, 인천-허베이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 개설
- 평택·당진항, 미국발 관세 쇼크로 대미 자동차 수출 급감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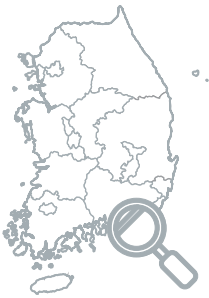
- 중국, 8월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수출 5.8% 급등
- 로테르담항, '25년 상반기 컨테이너 증가에도 벌크 감소로 실적 하락
- 현대글로벌비스, 멕시코 마타모로스 신항만 개발 본격화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5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3% 증가
- '25년 5월 자동차, 국내 내수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 첫 50% 돌파
- '25년 6월 국제유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상승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자성대부두 일부 선석 한시적 활용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가 '25년 7월 1일부터 자성대 부두의 일부 선석에 대해 북항재개발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
 - 자성대 부두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대상지로 지난해 말 컨테이너 부두 기능을 종료하였으며, 육상부 유희시설은 신항 2-6단계 부두의 하역장비 제작장,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음
 - 단, 선석부의 경우 보안구역이 해제되면서 외항 컨테이너선의 이용이 중지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선사 및 해운협회, 수리조선업계 등 관계자들로부터의 접안시설 부족에 따른 유희 선석 활용 요청이 이어짐
 - 이에 BPA는 부산항 기항 선사들을 대상으로 선석 이용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2% 선사가 이용 의사를 밝혀, 선사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항만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북항재개발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
- 자성대 부두 선석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운항 중 긴급 선내 정비, 선박 검사, 선원 응급환자 이송, 정부 조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최대 48시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함
 - 긴급한 사항인 경우 24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인근 지역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접안 조건을 적용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7.0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867>(2025.07.22. 검색)

2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 준공²⁾

■ BPA는 '25년 7월 1일,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의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운영 준비에 돌입함

- 해당 확장공사는 북항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기능이 종료된 북항 1·2부두 일반화물 부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총사업비는 약 75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감천항 3·4부두 일원에 부두 3선석 및 야적장 부지 27,600㎡ 규모로 신설됨
- 부두의 보안 평가와 장치장 보세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공용부두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임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 준공 사진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875>(2025.07.2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7.0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875>(2025.07.22. 검색)

3 BPA, 일본 센다이에서 부산항 설명회 개최³⁾

- BPA는 일본 동북지역 거점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부산항 이용 촉진 설명회’를 개최함
 - 해당 지역 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항의 환적 메리트 설명을 통해 부산항과 센다이항 간 정기항로 활성화 등을 논의함
 - 부산항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물류비 절감 및 정시성 확보 등 항만 운영 개선 성과를 집중해서 소개함
 - 특히, 일본 디지털포워드 기업인 Shippio社は 중국 선전에서 센다이까지 부산항을 경유하는 경우 일본 주요 항을 이용할 때 보다 물류비를 약 25~30% 절감할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하는 등 부산항의 경제성을 부각함
- 해당 설명회는 일본 동안 지역 첫 개최로 기존 일본 서안 지역에 집중되었던 포트세일즈 활동을 동북지역까지 확대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됨
 - BPA는 일본 전역의 화물 흐름을 분석해 환적 타켓 지역을 설정하는 등 맞춤형 화물 유치 및 파트너십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7.08.),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884>(2025.07.22. 검색)

2) 인천항



1 인천-허베이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 개설⁴⁾

- 인천항만공사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HIS, Huanghua Incheon Service)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해당 항로는 인천과 중국 허베이 지역의 징탕(Jingtang), 황하(Huanghua)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로 인천과 허베이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첫 노선임
 - 중국 허더항운(Hede International Shipping Limited)이 600TEU급 선박 M/V SHAO YUN을 투입해 주 1.5항차(5일 1항차)로 운영함
 - 이번 개설을 통해 베이징, 텐진 등 허베이성 지역과 수도권 간 물류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해당 항로를 기반으로 황하항에서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해 중앙아시아까지의 연결도 가능해져 중고 자동차 수출 등 연간 5만TEU의 물동량 창출이 전망됨**
 - 공사는 향후 허베이성 화주 대상 마케팅을 강화해 신규 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인천항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인천항만공사, 인천-기룡 잇는 크루즈 노선 개척 계획⁵⁾

- 인천항만공사는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대만크루즈협회와 인천항-기룡항을 연결하는 더블 홈포트(Double Home Port) 항로 개설 방안을 논의함**
 - 더블 홈포트는 두 항만이 동일한 크루즈 항로의 출발·도착항으로 함께 운영되는 형태로, 양국 승객이 각자의 항만에서 승하선이 가능함
 - 인천항은 인천국제공항과의 근접성(약 30분 거리)을 바탕으로 관광과 연계한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모델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인천항-기룡항 간 항로 개설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는 대만크루즈협회 및 국내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인천항의 지리적, 관광적 강점을 소개하고 향후 양항 간 상호 모항 운항 모델 정착을 추진하기로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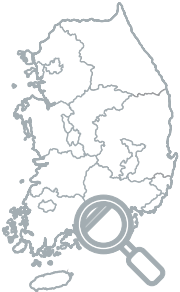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인천항만공사(2025.07.2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056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5.07.21. 검색)

5) 인천항만공사(2025.07.1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0477&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5.07.21. 검색)

3) 여수·광양항



1 광양항, 전기 야드트랙터 10기 본격 운영, 친환경 스마트항만 전환 가속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7월 3일부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에 무상 지원한 전기 야드트랙터(e-Y/T) 10기를 본격적으로 투입하여 운영을 시작함

 - 해당 장비는 YGPA의 친환경·스마트항만 전환 전략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전기 구동식 하역장비로, 탄소배출 저감과 부두 운영 효율성 향상이 동시에 기대됨
 - e-Y/T는 한국국제터미널(주)와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에 각 5기씩 배분되었으며, 연료비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에서 높은 효과가 기대됨
-  YGPA는 2021년부터 매년 디젤 기반 하역장비(R/S, T/H 등)를 무상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컨테이너 부두의 상하차 대기시간을 '22년 27.4분에서 '24년 22.0분으로 약 20% 단축시킨 성과를 거둠

 - 그러나 경유 장비 사용은 환경적 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년부터 장비 지원 체계를 친환경 장비 중심으로 전환함
 - 이번 사업은 YGPA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총 17억 원이 투입됨
-  YGPA는 향후 전기 리치스태커(e-R/S), 전기 트윈핸들러(e-T/H) 등 친환경 장비로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 YGPA는 이번 장비 도입이 장비 운영사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광양항 물동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YGPA는 친환경 전환과 운영 효율성 제고는 항만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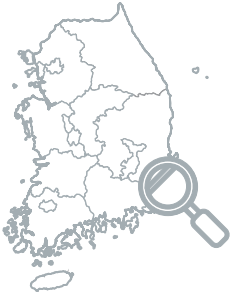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6) 해사신문(2025.07.03.),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72\(2025.07.24. 검색\)](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72(2025.07.24. 검색))



자료: 해사신문,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72>(2025.07.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울산항



① 해상풍력 기자재 수출 거점화 추진⁷⁾

- 울산항만공사(UPA)는 GS엔텍과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며 기자재 수출 거점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협약은 모노파일 등 고정식 해상풍력 기자재의 수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울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풍력 기자재 물류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됨
 - GS엔텍은 울산항 배후에 수출입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선적 및 수출을 지원할 예정임
 - GS엔텍은 고정식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 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항에 글로벌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양사는 물류체계 공동 구축, 기술협력, R&D 등에서 협력 확대기로 합의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시사저널(2025.07.1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550>(2025.07.23.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관세 쇼크로 대미 자동차 수출 급감, 평택항 물동량에 직격탄 가능성⁸⁾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6월 16% 감소하며 평택항 자동차 처리 물동량에 타격을 가함

 -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터미널 가동을 저하를 경험하고 있음
 - 상반기 전체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면서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의 활용도가 크게 축소됨
- 평택항은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동차 물동량 감소의 영향권에 있음

 - 6월 전기차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대미 수출 감소 폭이 더 커 평택항 전체 자동차 처리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현대글로벌비스가 운영하는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의 선석 활용률이 미국향 물량 감소로 인해 저하되고 있음
- 평택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로 일부 물동량 보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대미 수출 대체 항로 개발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물동량 회복이 평택항의 당면 과제로 부상함
 - 친환경차 수출 확대와 연계한 평택항의 특화 항만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8) SBSBiz(2025.07.17.),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7360?division=NAVER> (2025.07.24. 검색)

6) 포항항



1 영일만항, 북극해 항로 시대 대비 전략 모색⁹⁾

- 경상북도는 북극해 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함

 -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경북연구원을 비롯하여 포항영일신항만(주) 등 항만운영사가 모인 가운데 진행됨
 - 영일만항의 경우 북극항로 상 가장 가까운 국제컨테이너 터미널로 장래 북극항로 연관 산업인 에너지, 벌크화물, 크루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인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북극항로 통과 선박 수리조선 및 러시아 수산물 수입 확대를 통한 수산가공단지 활성화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화 모델도 논의됨
- 한편, 경북도는 '25년 초 약 34만㎡인 영일만항을 두 배 이상 확장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포항 영일만항 확장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¹⁰⁾

 -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논의된 추진 전략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종합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임
 - 이를 통해 경북도는 영일만항을 단순 물류항이 아닌 보급·정비·교역이 결합한 복합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경상북도청 보도자료(2025.07.10.),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EB%B3%B4%EB%8F%84%EC%9E%90%EB%A3%8C&cmd=2&Start=0&B_NUM=504372801&B_STEP=504372800&B_LEVEL=0&key=2&word=%EB%B6%81%EA%B7%B9&p1=0&p2=0&V_NUM=2&tbbcode1=bbs_bodo\(2025.07.22. 검색\)](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EB%B3%B4%EB%8F%84%EC%9E%90%EB%A3%8C&cmd=2&Start=0&B_NUM=504372801&B_STEP=504372800&B_LEVEL=0&key=2&word=%EB%B6%81%EA%B7%B9&p1=0&p2=0&V_NUM=2&tbbcode1=bbs_bodo(2025.07.22. 검색))

10) 경북일보(2025.07.17.),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134\(2025.07.22. 검색\)](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134(2025.07.22.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25년 상반기 연안 및 국제여객선 이용객 3.3% 감소¹¹⁾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강원도 연안 및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총 10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10만 5천 명)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91,681명으로 '24년과 유사한 수준(91,679명)인 반면,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24년 14,011명에서 '25년 10,538명으로 24.8% 감소함
- 묵호·강릉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연안여객선 수요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독도항로를 증편 운항한 씨스타1호의 실적 증가로 전체 이용객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국제여객선의 경우,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및 사카이미나토로 운항하는 항로는 러시아 이용객이 중국 경유 항공편을 선호하면서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국내외 관광 수요 약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객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사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5.07.10.),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26370>(2025.07.24. 검색)

8) 목포항



1 목포시, '26년 국고 확보 총력전, 해상풍력 특화 항만 구축 등 850억 원 규모 해양 인프라 대대적 확충 추진¹²⁾

- 목포시가 7월 17일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26년도 국고확보 대응 시·군 부단체장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총 850억 원 규모의 해양 관련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공식 건의함

 - 조석훈 부시장(목포시장권한대행)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확보 전략을 논의함
 -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국고팀장 등 도청 주요 예산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함
-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2단계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부상함

 - 총 81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남권 해역 대규모 풍력 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목포를 해상풍력 거점 항구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 풍력 기자재 운송과 해상 시공을 위한 전용부두 구축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확대를 포함함
 - 목포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5억 원의 초기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단계적 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갈 방침임
- 삽진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및 마른김 거래소 운영 장비 구입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함

 -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은 총사업비 18억 원 중 5억 원을 국비로 요청하며, 어선 안전 및 해양활동 기반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임
 - 마른김 거래소 운영 장비 구입은 총 20억 원 규모 중 8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품질 분석기, 저장 냉동 설비, 전산화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2) 지이코노미(2025.07.13.),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302912\(2025.07.24. 검색\)](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302912(2025.07.24. 검색))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부두 활성화 위해 11개 기관 협력 체계 구축¹³⁾

- 대산항 국가부두 물동량 증대를 위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충남도, 서산시, 석유화학 기업 등 11개 기관이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함

 - 참여기관은 대산청, 지자체,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등 배후기업 및 부두운영사가 포함됨
 - 협약 주요 내용은 행정 지원, 항만 인센티브 확대, 국가부두 이용 확대, 항만서비스 제공 보장 등이며, 각 기관은 추진성과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동 위기 대응 의지 표명함
- 대산항은 전국 무역항 중 물동량 6위이나, 국가부두 비중은 3%에 불과해 활용률이 저조함

 - 국가부두는 전체 33선석 중 5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운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석유화학산업 침체 여파로 국가부두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1분기 대비 약 29% 감소함
 - 대산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부두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계기로 삼을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6.18.),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11145>(2025.07.23. 검색)

10) 군산항



1 새만금 신항, 2026년 하반기 개항 계획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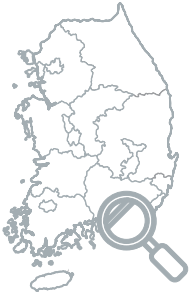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신항의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화하고 있음
 - 새만금 신항은 신시도~비안도 사이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해상에 조성 중이며, 현재 1단계로 부두 2선석에 대한 방파제, 부지 매립 등의 공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기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계획했으나, 무역항 지정 등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하반기 개항이 유력시됨
- 새만금 신항의 총사업비는 3조 2,476억 원이며, 이 중 2조 6,138억 원이 1단계에 투입될 예정임
 - 항후 완공 시에는 5만 톤급 이상 선박이 입출항 가능한 9선석 규모의 무역항이 되며, 방파제 3.4km, 호안 16.3km, 배후부지 451만㎡가 마련될 계획임
 - 이에, 전북도는 기반시설 조기 완공 외에도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4) 전북일보(2025.07.17.), <https://www.jjan.kr/article/20250717580250>(2025.07.21. 검색)

11) 마산항



1 마산항 민간 운영 항만시설 보안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추진¹⁵⁾

-  마산항 등(부산항 및 울산항)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11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검사 수행 기관이 기존 한국선급(KR)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됨

 - 해양수산부는 '25년 7월 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항만시설 보안검사 이관을 결정했으며, 보안검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됨
-  마산항의 경우, '25년 말까지는 한국선급이 보안검사를 담당하고, 이후 '27년 5월 1일부터는 공단이 전담하게 됨

 - 공단은 업무 이관에 대비해 '25년 6월 보안심사팀을 신설하고, 법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18명을 확보함
 -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 운영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 및 행정 지원도 병행 예정임
-  항만시설 보안검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 테러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됨

 - 선박 및 항만시설의 파손 여부, 무기·폭발물 은닉 가능성, 승하선 및 화물 처리 과정에서의 위협행위 여부 등을 점검함
 - 해당 법적 근거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7월 1일 발효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 Code)'에 기반함
 -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이번 기관 변경 조치로 민간 운영 항만시설의 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산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보안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국제신문(2025.07.07.),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707.99099001830\(2025.07.25. 검색\)](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707.99099001830(2025.07.25.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8월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중국 6월 수출 5.8% 급등¹⁶⁾

- 미국의 對중 관세가 8월 시한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주문을 앞당기면서 중국의 '25년 6월 수출 증가세가 가속화됨**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여 5월 증가세인 4.8%를 웃돌았으며, 수입도 올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반등해 1.1% 증가세를 기록함
 - 對미 수출의 경우 16% 감소했지만, 5월 감소세인 34.5%에 비하면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듦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 관세를 부과하다 중국도 대규모 수입 관세로 맞대응했지만, 양측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에 합의함
 - 이에 따라 새 관세로 인해 신발, 의류, 장난감 등 수입을 중단했던 소매업체와 수입 업체들이 다시 중국산 제품 수입을 재개하면서 증가세로 이어짐
 - 다만, 양측 간의 예비 협의는 아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돌발적인 정책 변화가 기업들의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30%로 인상했으며, 해당 관세는 8월 12일 이후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이러한 무역 회복세는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남은 올해 전망은 다소 밝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음**
 - 관세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제조업체가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제약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분기 동안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상반기 세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됐음에도 중국의 글로벌 교역은 계속 증가함**
 -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교역액은 20조 위안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무역 흑자는 5,860억 달러를 기록함
 - 상반기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3%가 늘었으며 그 가운데 태국 22%, 베트남 20%, 인도로 18% 이상 증가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AP News(2025.07.14.), <https://apnews.com/article/china-trade-exports-trump-tariffs-570852c13d62b3ae55667ec686ea43dc>(2025.07.22. 검색)

2 중국, 파나마 항만 거래 차단 경고¹⁷⁾

- 중국이 자국의 대표 선사인 코스코(Cosco)가 파나마 운하 인근 2개 항만의 운영 지분 협상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함
 - 현재 홍콩의 CK 허치슨이 운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2개에 대해 지분 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약 200억 달러 규모에 해당됨
 - 협상에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과 스위스 해운사인 MSC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중국 측은 해당 협상에 코스코가 블랙록·MSC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배제되는 경우 매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거래 당사자들은 코스코와의 참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허치슨 및 MSC 등은 중국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거래는 단순 항만 지분 매각 거래가 아닌 파나마운하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물류 영향권 확보 등과 관련이 있어 중국이 참여할 경우 미국 측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참여 가능성 등이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New York Post(2025.07.17.), <https://nypost.com/2025/07/17/business/china-threatens-to-squash-panama-ports-deal-unless-its-shipping-giant-gets-an-equal-stake-report/>(2025.07.22.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지속적인 혼잡도 증가¹⁸⁾¹⁹⁾

- 🔍 '25년 6월 이후 싱가포르항은 아시아 내 가장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는 항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OOCL Logistics에 따르면, 6월 중순 이후 싱가포르에서 접안을 대기 중인 선박은 전체 입항 선박의 약 60%에 달하며, 평균 접안 대기 시간은 기존 2~3일에서 1주일 이상으로 증가함
 - 이는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의 평균 접안 시간인 24시간 대비 약 7배 수준임
- 🔍 이러한 혼잡은 단기적 수요 증가 외에도 글로벌 항로 스케줄 문제, 선사들의 기항 축소에 따라 싱가포르항으로 환적 화물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병행된 결과로 분석됨
 - 특히 '25년 1월 이후 싱가포르에서의 컨테이너 덤프는 약 30% 증가하였으며, 이는 선사들이 복잡해진 운항 일정 속에서 화물을 일시적으로 하역하는 조치로 해석됨
- 🔍 Tradlinx에 따르면, 싱가포르항의 평균 접안 지연은 4~6일이며, 야적장 가동률은 85% 수준으로 상승해 추가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항만 혼잡은 단일 항만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미주 및 아시아-유럽 항로의 정시율 하락과 병목의 연쇄 전파를 야기하고 있음
 - 실제로 '25년 6월 기준, 전 세계 주요 항만의 정시 입항률은 58.7%에 불과해, 팬데믹 시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싱가포르항은 혼잡 완화를 위해 신규 터미널 개방 및 선복량 확충 등 비상 조치를 시행 중이나, 업계는 향후 수개월 간 이러한 병목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OOCL Logistics(2025.07.02.), <https://www.oocllogistics.com/eng/newsandmedia/news/2025/Pages/20250702.aspx>(2025.07.21. 검색)19) TRADLINX(2025.06.18.), <https://blogs.tradlinx.com/worldwide-port-delays-surge-300-in-june-2025-critical-hubs-like-singapore-cape-town-and-rotterdam-hit-hard/>(2025.07.21. 검색)

2 일본 K-Line, 미중 무역 긴장 고조에 따라 미국 항만 회피 항로 검토²⁰⁾

-  일본 주요 해운사인 K-Line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시행 가능성에 대응하여, 일부 선박의 미국 항로 회피(re-routing) 방안을 검토 중

 - 이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일본 해운업계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방증함
-  K-Line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선박의 운항 루트를 아시아·유럽 등 대체 시장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현재 미 행정부는 일부 중국산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검토 중에 있으며, K-Line은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최근 아시아-미국 항로에서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변화된 항로 운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됨
-  K-Line은 최근 자동차 운반선(PCC)과 LNG 운송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으며, 항로 재조정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임

 - 아울러 최근 항만 혼잡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이 해운사들의 전략적 항로 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20) Reuters(2025.07.16.), <https://www.reuters.com/business/japans-kawasaki-kisen-prepared-reroute-more-ships-away-us-over-tariffs-ceo-says-2025-07-16/> (2025.07.23. 검색)

3 인도 주요 항만, '24-25 회계연도 기록적 성과 달성, 화물 처리량 855백만 톤으로 4.3% 증가²¹⁾

-  인도 정부 소유 주요 항만들이 '24-25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855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함
 - 컨테이너 처리량 10% 증가, 비료 화물 처리 13% 증가, 석유제품(POL) 3% 증가, 기타 화물 31% 증가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임
 - 인도 항만 인프라의 안정성과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 역량을 보여줌
-  주요 항만별로 역사적 이정표를 달성함
 - 파라딥항만공사(PPA)와 디다알항만공사(DPA)가 역사상 처음으로 150백만 톤 화물 처리량을 돌파하며 인도 해상 교역의 핵심 허브로서 지위를 강화함
 - 자와할랄 네루항만공사(JNPA)는 730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 대비 13.5% 증가한 신기록을 수립함
-  항만 주도 산업화와 민관협력 투자가 크게 확대됨
 - 총 962에이커의 토지가 산업 활동에 할당되어 756억 5,000만 루피 수입 창출이 예상되며, 향후 투자는 68,780크로르 루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항만의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투자가 '22-23 회계연도 132억 9,000만 루피 '24-25 회계연도 398억 6,000만 루피 3배 증가함
-  운영 효율성과 재정 성과 개선이 기대됨
 - 선박 접안 전 대기시간(PBD)이 전년 대비 약 36% 개선되고, 총 수입이 8% 증가한 2,420억 3,000만 루피 기록함
 - 지난 10년간('14-15~'24-25) 화물량이 581백만 톤에서 855백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4%를 달성했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70% 증가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1) mritime gateway(2025.06.24.), <https://www.maritimegateway.com/indian-ports-record-breaking-performance-in-fy-2024-25/>(2025.07.24. 검색)

4 시리아, DP World와 8억 달러 규모 항만 인프라 구축 협정 체결²²⁾

-  시리아 육해항만청이 UAE의 DP World와 8억 달러 규모의 시리아 항만 인프라 및 물류 서비스 강화 협정을 체결함
 - 이번 협정은 5월에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이 진행됨
 - Dubai World의 자회사인 DP World는 글로벌 항만 운영 전문기업으로 중동지역 항만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협정의 핵심은 지중해 연안 타르투스항의 다목적 터미널 개발과 산업·자유무역지대 설립 협력임
 - 타르투스항은 시리아의 주요 지중해 항만으로 국가 경제 재건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함
 - 산업지대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활성화를 도모함
-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가 항만 개발 협정 체결의 배경으로 작용함
 - 트럼프 대통령이 대시리아 제재 프로그램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리아의 국제 금융 시스템 고립 상태가 해소됨
 - 제재 해제로 인도주의 기구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와 무역이 활성화되어 내전으로 파괴된 경제 재건이 가능해짐
-  이번 협정은 시리아의 경제 재건과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2) Reuters (2025.07.1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syria-signs-800-million-agreement-with-dp-world-bolster-ports-infrastructure-2025-07-13> (2025.07.24. 검색)

3) 미주



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LNG 아시아 수출 개시²³⁾

- BC주의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12년 발표 이후 약 10여 년 만에 첫 선적이 성사되었으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수송이 가능함
 - 천연가스는 내륙 유정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670km 수송되어 키티맷(Kitimat) 해안 지역에 있는 액화 시설을 통해 선적되며, 첫 LNG는 셸이 용선한 '가스로그 글래스고(Gaslog Glasgow)'호에 실려 출항함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는 데는 약 10일이 걸리는데, 파나마 운하를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하면서 수송거리가 짧아 아시아 수요자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국의 LNG 수출 시설은 대부분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경우, 일본에 도달하는 데 약 25일이 걸리고 파나마 운하를 우회해 아프리카 끝을 돌아갈 경우 거의 40일이 소요됨
- 아시아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단계 확장을 통한 생산능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는 아시아 기업들이 중심이며,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가 25%,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15%, 일본의 미쓰비시상사가 15%, 한국의 가스공사(KOGAS)가 5% 지분을 보유함
 - 연간 생산능력 1,400만 톤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약 2.5%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두 배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캐나다 서부 키티맷의
부두에 접안한
'가스로그 글래스고호'



자료: 글로벌이코노믹(2025.07.02.),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701183133900c8c1c064d_1/article.html\(2025.07.23. 검색\)](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701183133900c8c1c064d_1/article.html(2025.07.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글로벌이코노믹(2025.07.02.),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701183133900c8c1c064d_1/article.html\(2025.07.23. 검색\)](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701183133900c8c1c064d_1/article.html(2025.07.23. 검색))

2 현대글로벌비스, 멕시코 마타모로스 신항만 개발 본격화²⁴⁾

◆ 현대글로벌비스 멕시코와 멕시코 건설사인 모타엔길은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 신항만 ‘푸에르토 델 노르테(Puerto del Norte)’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현대글로벌비스 멕시코와 건설사 모타엔길은 6월 26일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 위치한 신항만 개발을 위해 주정부와 물류, 보안, 운영계획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함
- 항만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출업체 운송 시간과 비용이 최대 30% 절감될 수 있으며, 마타모로스 신항만은 북미시장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푸에르토 델 노르테 항만은 멕시코 북부에서 북미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해상 물류 허브 역할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멕시코 북부는 미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함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이 적용되어 북미 공급망 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대글로벌비스, 모타엔길, 타마울리파스주 정부는 항만 인프라를 확대하고 항만 보안 기능을 강화해 수출입 물류의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완성차 및 대형 화물의 수출입이 많은 지역 특성상 물류비 절감과 운송 효율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통해 실제 운송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글로벌이코노믹(2025.06.27.),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6270734464619fbbec65dfb_1/article.html(2025.07.23. 검색)

4) 유럽



1 로테르담항, '25년 상반기 처리량 4.1% 감소, 컨테이너 증가에도 벌크화물 부진으로 전체 실적 하락²⁵⁾

- ◆ 로테르담항의 '25년 상반기 총 화물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2억 1,100만 톤을 기록함
 - 컨테이너는 TEU 기준 2.7% 증가한 700만 TEU를 달성했으나 건화물 8.9%, 액체화물 5.3% 감소로 전체 실적이 부진함
 - 바우더베인 시몬스 로테르담항만공사 CEO는 경제 불확실성, 공급망 혼란, 산업투자 위축을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 컨테이너 부문은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량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보임
 - 아시아발 수입이 8.4%, 북미 물량이 9.1% 증가했으나 공컨테이너 수출 급증과 풀 컨테이너 수출 5% 감소로 전체 톤수는 1.0% 하락함
 - 이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 벌크화물 부진이 유럽 산업 기반의 구조적 약화를 시사함
 - 건화물은 석탄 처리량 21.1% 감소, 철광석 및 고철 12.2% 감소로 독일 철강 생산 둔화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수요 위축을 반영함
 - 액체화물에서는 원유 처리량이 2.6%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이 21.5% 급감하여 전체 실적이 감소함
- ◆ 항만 당국은 높은 에너지 비용, 전력망 혼잡, 질소 규제 등으로 산업 투자 결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5) BreakBulk.News(2025.07.22.), [https://breakbulk.news/rotterdam-port-throughput-falls-4-1-in-first-half-of-2025-despite-container-growth/\(2025.07.27. 검색\)](https://breakbulk.news/rotterdam-port-throughput-falls-4-1-in-first-half-of-2025-despite-container-growth/(2025.07.27. 검색))

2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항, 트럼프 관세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²⁶⁾

- 유럽 최대 컨테이너항인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항이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천 대의 차량이 발이 묶이면서 의도치 않은 주차장으로 변모함
 - 미국행 승용차와 밴, 트럭, 트랙터 등 수천 대가 정박해 있으며, 제조업체들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 '25년 상반기 대미 신차 및 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으며,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직후인 5월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가 트럼프 재임 전 2.5%에서 4월 초부터 27.5%로 급등하여 유럽 자동차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
 - 앤트워프-브뤼헤항은 대미 최대 수출항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운송 허브 중 하나로, 2024년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선적함
 - 항만 당국은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8월 1일까지 EU와 미국 간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밝힘
- 독일이 관세 충격의 최대 피해국으로 부상함
 -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대미 차량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나, 4월과 5월에는 25% 관세 부과로 23.5% 급감함
 - 독일 자동차협회(VDA)는 추가 미국 관세가 자유롭고 규칙 기반 무역에 재앙적 신호를 보낸다고 양측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함
- 독일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2024년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약 73%를 차지하여 관세 인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6) CGTN(2025.07.20.), <https://news.cgtn.com/news/2025-07-20/EU-port-turned-into-giant-car-park-amid-looming-Trump-tariffs-1F9K1LoqKis/p.html>(2025.07.27.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서부, 지역 항만 인프라 개선에 2억 달러 이상 투자²⁷⁾

- 서호주 주정부는 '25-'26년 주정부 예산안에서 총 2억 400만 호주달러(약 1억 3,280만 달러)를 지역 항만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함

 - 이번 투자는 서호주 주요 항만의 기능을 현대화하고 향후 무역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 주요 투자 항만은 프리맨틀(Fremantle)항으로, 8,800만 호주달러(약 5,720만 달러)가 내항내 노후 선석 보강에 배정됨

 - 해당 선석은 1920년대에 최초 건설된 것으로, 현대 선박의 접안과 증가하는 화물 적재량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예인선 지원시설 건설을 위한 2,030만 호주달러(약 1,320만 미화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항만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로 기능할 예정임
- 서호주 정부는 신규 및 기존 항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서호주의 무역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서호주 전체 항만의 미래 수요에 대비한 기반 확보로, 주요 및 지역 항만의 경제적 역할 유지와 더불어 국가 전체 무역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7) Port technology(2025.06.2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western-australia-commits-millions-to-upgrade-regional-ports/>(2025.07.24. 검색)

6) 아프리카



1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 성공²⁸⁾

- ❖ 더반항은 7월 4일, 전장 399.99m, 최대 19,437TEU급 MSC Rifaya호의 접안 및 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이는 동 항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선 접안 사례로, 대형 선박 수용 능력을 실증한 사례로 평가됨
 - MSC Rifaya호는 긴급 수리 목적의 비정기 입항이었으나, 항만의 대형선박 수용역량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남아프리카 항만당국인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는 본 사례를 통해 더반항이 글로벌 해운 흐름에 부합하는 대형선박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 선박 접안은 4척의 예인선을 동원한 고난도 작업으로, 철저한 사전계획과 정밀한 실행이 요구되었음

 - 이를 통해 더반항의 고급 해양운영 역량과 해기사 및 운영진의 전문성을 입증함
 - Nkumbuzi Ben-Mazwi 더반항 임시 항만장은 이번 성과는 더반항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가장 복잡한 해양 작업도 수행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언급함
- ❖ 이번 사례는 초대형 선박 수용 능력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항만 경쟁 속에서 더반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Engineering news(2025.07.04.),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port-handles-largest-vessel-to-date-2025-06-19> (2025.07.2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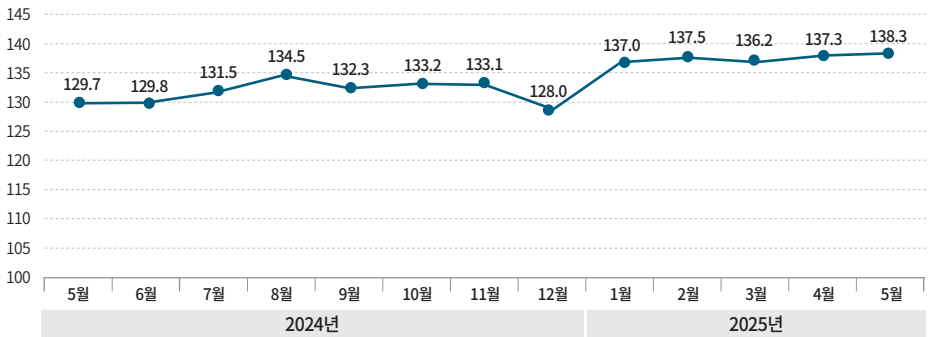


① '25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3% 증가²⁹⁾

- '25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138.3p를 기록함
 -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이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내면서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미국 서해안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항만의 물동량은 소폭 감소함
 - 반면, 유럽 항만의 처리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강화된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6.5p로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5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7.4p로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6.4% 증가함

29) ISL(2025.06.26.),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525\(2025.07.22. 검색\)](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525(2025.07.22. 검색))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Total	129.7	129.8	131.5	134.5	132.3	133.1	132.9	128.7	136.8	137.5	136.8	137.9	138.3	0.3	6.6
China Index	144.2	144.5	146.7	150.5	147.2	148.2	144.4	136.7	154.2	157.2	154.1	156.7	156.5	-0.1	8.5
North Range Index	110.3	109.9	111.2	114.3	112.6	115.1	115.3	108.6	115.0	112.7	114.3	115.9	117.4	1.3	6.4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525\(2025.07.22](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525(2025.07.2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28년까지 컨테이너선 시장 공급 과잉 지속 전망³⁰⁾

-  컨테이너 해운업계가 장기간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최소 '28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옴
 - 브레이머(Braemar)의 최근 '분기별 컨테이너선 통계(Quarterly Container Fleet Statistics)'에 따르면 신조선 발주 급증과 해체 감소가 공급·수요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25년 상반기에만 230만 TEU 규모의 신조선이 발주되었으며, 이는 '24년 하반기 기록적인 380만 TEU 발주에서 소폭 줄어든 수준에 불과함
 - 또한 노후 선박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활동이 부진하여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해체된 선박은 총 10척인 5,454TEU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600TEU 대비 큰 폭의 감소임
 - 이는 최근 높은 운임, 희망봉 경유 증가와 글로벌 화물의 건조함, 그리고 팬데믹과 홍해 사태 등 최근 몇 년간의 혼란으로 선주들이 예비 선박을 유지하려는 신중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5년 7월 1일 기준 현재 선박 발주 잔량은 960만 TEU로 추정하고 있으며, '28년에만 330만 TEU가 인도될 예정이며, 연평균 선대 성장률은 7.3% 전망됨
 - 이에 따라 브레이머는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8년까지 평균 27%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이로 인해 컨테이너선사들의 수익이 '28년에 바닥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대규모 신조선 인도 시기와 맞물리며, 홍해 항로 재개 가능성도 있는 시점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Global Trade(2025.07.18.), <https://www.globaltrademag.com/container-shipping-faces-overcapacity-crunch-until-2028/>(2025.07.22. 검색)

2) 양곡



① '25년 6월 기준, 주요 곡물 수입단가 전월 대비 상승세 기록³¹⁾

-  밀의 수입단가는 290달러/톤으로 전월(287달러) 대비 1.3% 증가, 전년 동월(314달러) 대비로는 7.4% 하락하여,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최근 3개월간(4~6월) 가격은 291→287→290달러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보합세를 보임
-  대두의 수입단가는 560달러/톤으로, 전월(529달러) 대비 5.8% 상승하며 비교적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 다만, 전년 동월(624달러) 대비 10.3% 하락하여 작년 대비 저가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25년 2월 이후 3개월간 낙폭 이후 6월 반등세 전환이 확인됨
-  옥수수 수입단가는 258달러/톤으로, 전월(250달러) 대비 2.9% 상승, 전년 동월(256달러) 대비 0.5% 증가하며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곡물임

 - '25년 들어 꾸준히 240~25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6월 들어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냄
-  한편, 미국 농무부(USDA)가 '25년 6월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보고서(WASDE)에 따르면, 밀, 대두, 옥수수의 생산 전망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³²⁾

 - 다만, 국제 가격은 전년 대비 대체로 하락세로 밀의 경우 미국 및 러시아, EU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됨
 - 대두의 미국 생산 전망은 전월과 유사하지만 브라질 공급 증가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옥수수는 미국 생산 상향, 브라질·아르헨티나산과의 수출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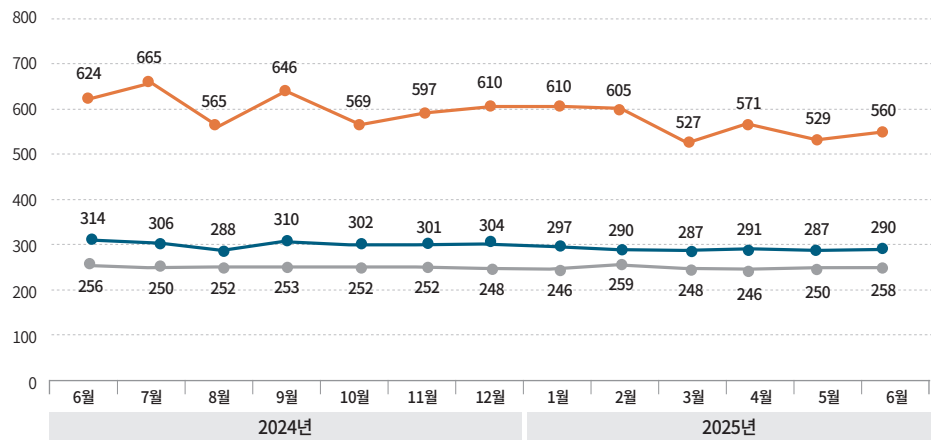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05.30.), [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7.23.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7.23. 검색))

32) USDA(2025.06.12.),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June-2025-wasde-lockup-briefing.pdf\(2025.07.23. 검색\)](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June-2025-wasde-lockup-briefing.pdf(2025.07.23.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곡물별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밀, 대두,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314	306	288	310	302	301	304	297	290	287	291	287	290	1.3	-7.4
대두	624	665	565	646	569	597	610	610	605	527	571	529	560	5.8	-10.3
옥수수	256	250	252	253	252	252	248	246	259	248	246	250	258	2.9	0.5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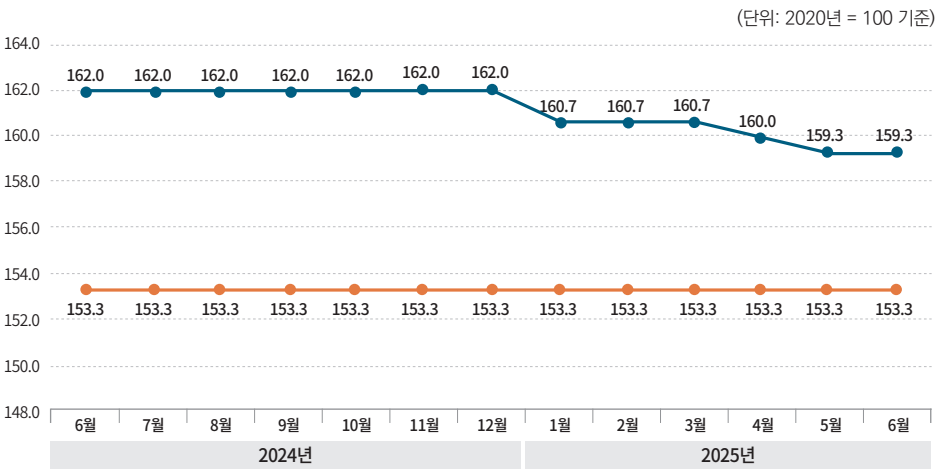


1 '25년 6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 '25년 6월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59.3p를 기록하였으며
고로 시멘트도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고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159.3	0.0	-1.7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f2\(2025.07.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f2(2025.07.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업계, 환경·안전 중심으로 5년간 2조 5000억 원 이상 설비 투자³³⁾

-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는 '21~'24년까지 총 2조 5306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 중 약 85%(2조 1,511억 원)가 환경·안전 및 원가절감 등 합리화 분야에 집중됨
 - 이는 '24년 업계 전체 매출(5조 5,267억 원)의 약 40%, 순이익(4,990억 원)의 4.3배에 해당됨
 - '25년 설비 투자 규모는 5,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할 전망이나, 환경·안전 분야 투자액은 1,875억 원으로 2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설비 투자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시 투자 여력 부족 우려도 제기됨
 - 한국시멘트협회는 환경설비 투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생존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함

시멘트 업계 설비 투자 동향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비중
생산설비투자	24	628	441	746	626	493	9.7%
신제품생산	16	4	5	9	18	10	0.2%
기존설비확장	8	624	436	737	608	483	9.5%
합리화설비투자	3,896	3,640	5,059	4,718	4,198	4,302	85.0%
자동화	453	748	1,031	1,335	927	899	17.8%
설비유지·보수	874	1,059	852	1,171	1,085	1,008	19.9%
에너지절약·공해방지	1,852	851	1,024	652	311	938	18.5%
환경·안전	717	982	2,152	1,560	1,875	1,457	28.8%
연구개발설비투자	13	37	15	13	17	19	0.4%
정보화설비투자	42	36	47	86	74	57	1.1%
기타 설비투자	251	127	121	225	226	190	3.8%
합 계	4,226	4,568	5,683	5,788	5,141	5,061	100.0%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서울파이낸스(2025.057.22.),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597>(2025.07.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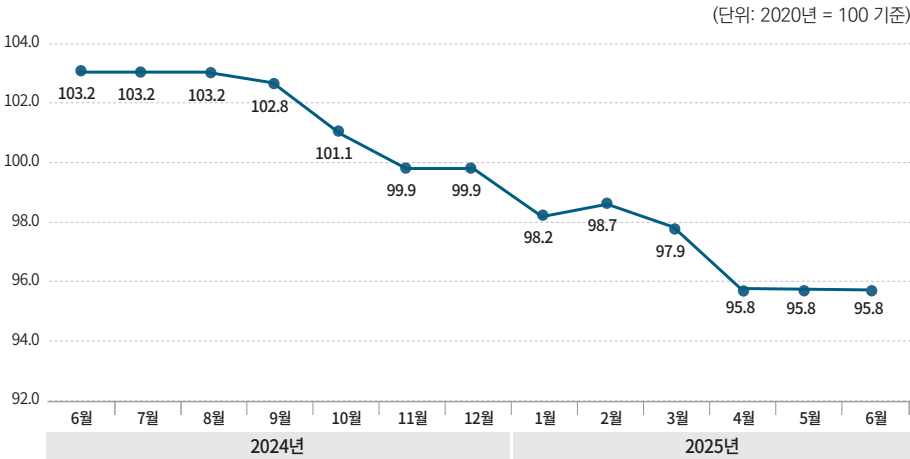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95.8p 기록

'25년 6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한 95.8p를 기록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97.9	95.8	95.8	95.8	0.0	-7.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5.07.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인천환경단체,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 협의 중단 촉구³⁴⁾

-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강화군의 바다모래 채취 추진 절차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함

 - 채취 대상지는 해양수산부 지정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인접 해역으로,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서만도) 및 멸종위기종 번식지와도 1.75km 거리,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도 5km 이내로 생태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임
 - 모래 채취 시 해저 지형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어업 피해, 선박 안전사고 위험 등 다각적 문제가 우려됨
- 해당 해역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안전관리구역’으로, 해양활동 제한이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채취가 추진 중임을 지적함

 - 건설경기 침체로 기존 허가업체들도 채취량 반납 중인 상황에서, 신규 채취 지정의 수요·공급 타당성 부재도 제기됨
 - 인천녹색연합 등은 환경 파괴와 생존권 침해, 안전 우려, 수요 타당성 부재 등 사유로 인해 강화군은 협의 요청을 철회하고 인천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
계획 지역
(파란선 안쪽 지역)



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경기신문(2025.06.29.),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52135\(2025.07.25. 검색\)](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52135(2025.07.25.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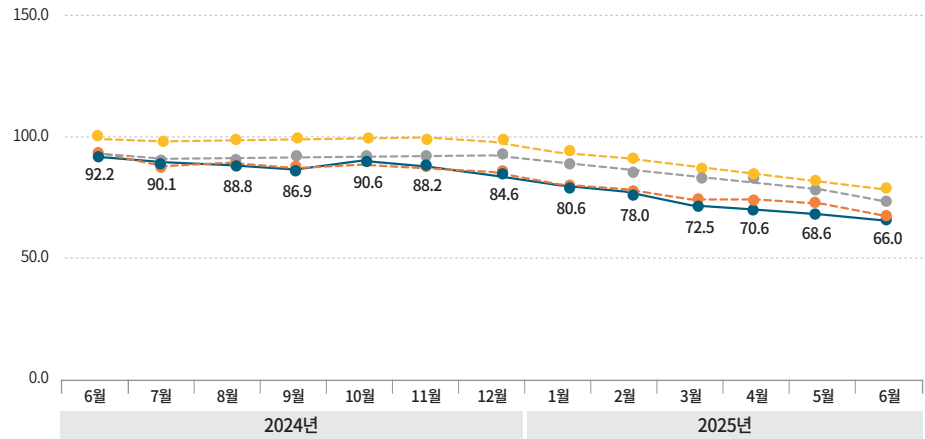
1 '25년 6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세 지속

- '25년 6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66.0달러로 전월 대비 3.8%, 전년 동월 대비 28.5% 감소함
- '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60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8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차드베이산(-7.0%), 칼리만탄산(-6.5%), 중국남부산(-3.3%)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단위: 달러/톤)

석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2.2	90.1	88.8	86.9	90.6	88.2	84.6	80.6	78.0	72.5	70.6	68.6	66.0	-3.8	-28.5
리차드베이	93.9	88.3	89.8	87.6	89.1	88.3	85.9	81.1	79.0	74.8	73.0	67.8	66.0	-7.0	-27.8
칼리만탄	93.7	91.4	91.7	92.0	93.5	93.6	92.9	89.6	86.3	84.5	81.6	78.8	73.8	-6.5	-21.2
중국남부	99.7	98.5	99.2	99.9	100.8	100.2	98.5	94.0	91.9	87.6	84.0	81.5	78.8	-3.3	-21.0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7.22](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7.22) 검색)

2 글로벌 주요 은행, 탈석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투자 확대³⁵⁾

-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탈석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석탄 발전에 대해 약 3,85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비영리 단체 우르게발트(Urgewal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글로벌 은행들의 석탄 관련 투자 금액이 '22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줄고 있지만,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21년 COP 기후 정상회의에서 약 200개국 정부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글로벌 상업은행이 화석연료 관련 자산을 제외하겠다는 약속과 반대되는 결과임
-  일부 은행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석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후 목표와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3년 말 بنك 오브 아메리카는 신규 석탄 광산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였으며, 대신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조건으로 변경함
 - 호주 맥쿼리 그룹의 경우도 지난해 제철용 석탄에 대한 금융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 3년 동안 석탄 자금 지원을 약 400% 늘림
 - 이로 인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후 안전 목표 기간인 '40년까지 석탄 금융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은행은 세계 99개 대형 은행 중 24개에 불과하여 기후 목표와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5) 임팩트온(2025.07.10.),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56>(2026.07.22. 검색)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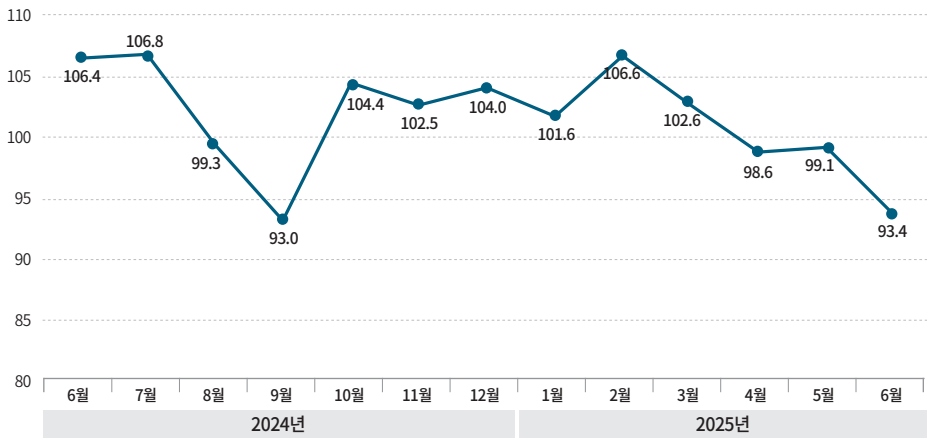


1

'25년 6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5.7%,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93.4달러 기록

- '25년 6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93.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중국 내 철강 수요 둔화 및 미국 달러 가치 상승 등 하방 압력이 발생하면서 하락세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나타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99.1	93.4	-5.7	-12.2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7.22.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7.2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 '25년 5월 누적 철광석 수입량 감소³⁶⁾

- 
글로벌 해상 철광석 시장은 '25년 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 해양 컨설팅사인 AXS Marine 데이터에 따르면 '25년 5월 누적 전 세계 해상 철광석 수출량은 6억 5,6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살펴보면 주요 철광석 수입국인 호주가 1.5% 감소, 캐나다 0.6% 감소, 인도가 40.2% 감소한 반면,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같은 기간 각각 2.2%, 0.3% 증가함
 -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4억 8,700만 톤을 기록함
 -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 역시 각각 6.5%, 1.1% 감소하였으며, EU는 5.4% 증가함
-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입 감소가 벌크선 해운 시장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중국의 수요 회복 모멘텀과 주요 수출업체의 공급 조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6) 해운의 소리(2025.07.08.), [https://www.shippingvoice.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2025.07.22 검색\)](https://www.shippingvoice.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2025.07.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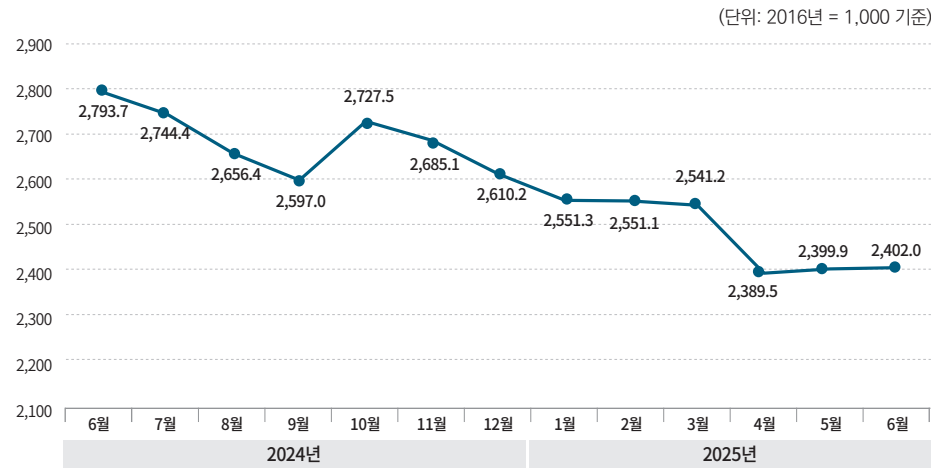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6월 광물종합지수는 2,402.0p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

’25년 6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한 2,402.0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2,793.7p) 대비해서는 14.0%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8	2,402.0	0.1	-14.0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IIndc/IndxMin\(2025.07.25.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IIndc/IndxMin(2025.07.25.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중국, 전략 광물 수출 통제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 예상³⁷⁾

-  중국 정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하며, 총 2,000개 이상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재검토 및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임

 - 기존에는 희토류·전략 광물 12종과 민군 겸용 품목 700종이 수출 통제 대상이었으나, 최근 화합물, 부품, 관련 기술 제품 등 파생 품목까지 포함해 통제 범위를 확대함
 - 통제 체계는 기존 복수 부처 체계에서 중국 상무부로 단일화되었으며, 수출 기업의 거래 내역 및 고객 정보까지 보고를 의무화하는 추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
 -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AI·배터리 견제에 대응하여 전략 광물의 무기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중국 독점적 지위를 가진 희토류 중 중(重)희토류 7종에 대해 미국 대상 수출 제한을 선제적으로 발표함
 - 해당 광물은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방산·항공용 핵심 소재로, 미 포드사는 자석 수급 차질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록히드마틴도 전투기 생산 지연이 발생함
-  파이낸셜타임스는 공식 통제 품목이 아님에도 티타늄, 지르코늄 등 일반 금속 제품 수출도 세관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 중임을 밝힘

 - 한국도 마그네슘 저함량 품목 등의 통관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상무부로부터 ‘수출 적합성 검토 문서’ 제출 요구를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한국은 희토류·흑연(97%)·리튬(84%)·저마늄(74%) 등 전략 광물의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산업계는 대체 공급선 확보 및 정부 차원의 전략 광물 비축 정책 확대를 요구 중임
-  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와 동시에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전략 광물의 국가 비축량을 확대 중이며, 벤치마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채굴되는 리튬의 90%는 중국 기업의 직·간접 소유 광산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함
 - 전면 차단 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반발 및 중국 이외 지역의 채굴 확대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규 비축 품목 발굴, 예산 확대, 비축 자산의 유연한 운용 등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화 공급망 안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조선일보(2025.07.15.),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7/15/6PGPZAT35VFG3IYRDERFN6X2BA/\(2025.07.25. 검색\)](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7/15/6PGPZAT35VFG3IYRDERFN6X2BA/(2025.07.25. 검색))

8) 목재



1 '25년 1~5월 원목 수입량은 61만 8천m³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제재목과 목재펠릿 수입량은 증가함
 - 제재목 수입량은 59만 6천m³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29,53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함
 - 합판(-10.4%), 파티클보드(-6.5%), 섬유판(-29.7%)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166만 5천 톤으로 4.1%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함
 -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내의 환율하락으로 가격조정이 불가피함
 - 태국산PB의 반덤핑관세로 중국산으로 수입선을 변경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5월)	2024년 누적 (1-5월)	증감률 (%)
원목(천m³)	618	691	-10.6%
제재목(천m³)	596	588	+1.4%
성형목재(톤)	29,533	33,294	-11.3%
합판(천m³)	534	596	-10.4%
파티클보드(천m³)	589	630	-6.5%
섬유판(천m³)	90	128	-29.7%
목재펠릿(천 톤)	1,665	1,600	+4.1%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06.2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K05CuprU-LO6Cp02ijRhxZPhe0naZ70x8JRj4BDF13eScF1SIYV78P19i3210xa.frsws02_servlet_engine5?nttId=3208841&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7.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K05CuprU-LO6Cp02ijRhxZPhe0naZ70x8JRj4BDF13eScF1SIYV78P19i3210xa.frsws02_servlet_engine5?nttId=3208841&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7.24. 검색))

2

국립산림과학원, 지역목재 활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³⁸⁾

-  국립산림과학원이 농촌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지역목재와 지역경제’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함
 - 지역목재 활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을 논의함
 - 일본의 ‘미치노에키(도로상 편의시설)’ 조성 사례를 통해 지역목재 활용 성공 모델을 검토함
-  지역목재를 목조건축 자재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지역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과 일자리(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 방향을 제시함
 -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구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함
-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역별 목재 공급망과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임
 - 박주생 목재산업연구과장은 지역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국산목재 이용 확대가 지역 성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힘
 - 국산목재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산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8) 산림청 보도자료(2025.07.0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09106&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 (2025.07.24. 검색)

9) 고철



① '25년 6월, 고철(생철) 가격 전월 대비 2.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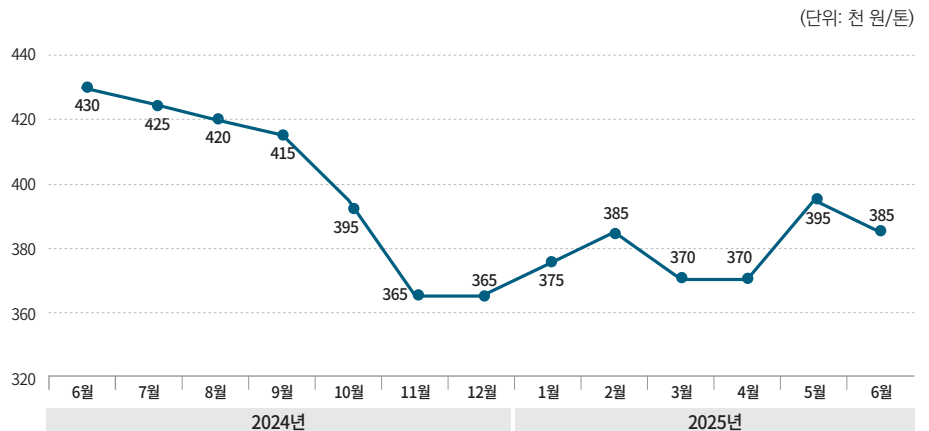
● '25년 6월 기준 고철(생철) 평균 가격은 톤 당 385천 원으로 전월(395천 원) 대비 2.5%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430천 원) 대비로는 10.5% 하락함

- 현재까지 전반적인 하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4년 하반기 이후 고철 가격은 10월(395천 원)부터 12월(365천 원)까지 급격히 하락함
- 이후, '25년 2월(385천 원)까지는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다시 370천 원 수준에서 횡보하며 회복세가 제한적인 양상을 이어옴

● '25년 6월 국내 철스크랩(고철)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 측 요인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전반적인 침체 양상을 보임³⁹⁾

- 특히 전기로 제강업체들의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철스크랩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함
- 6월 중 국내 주요 제강사들의 평균 설비 가동률은 약 45% 수준으로, 평년 대비 뚜렷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주요 제강사들은 철근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며 공급조절에 들어감
- 이러한 움직임은 전기로 제강의 핵심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시장 내 수요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임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7.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7.23. 검색)

39) 대한경제(2025.07.1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7081722028860897>(2025.07.23.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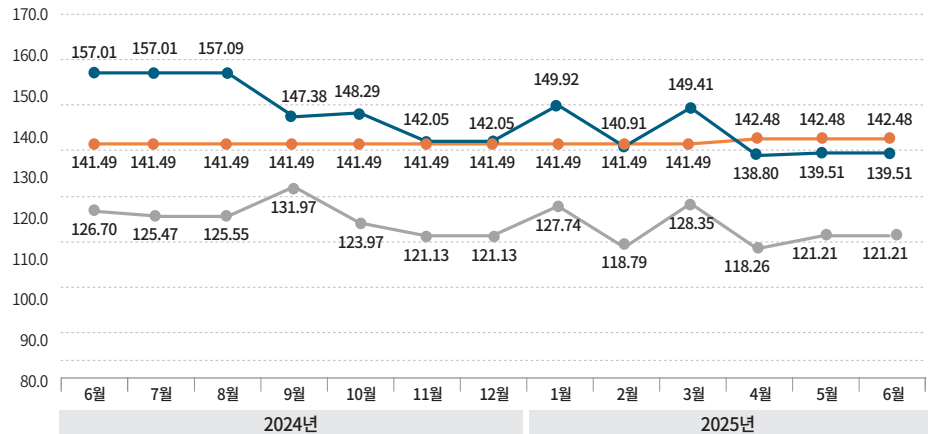


1 '25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선철, 슬래브, 빌렛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6월 선철, 슬래브,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142.48p, 139.51p, 121.21p를 기록함

-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여 제선 공정 후 생산된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4월 소폭 올라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함
- 전로 및 전기로를 통해 생산되는 반제품인 조강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슬래브와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p, 4.3%p 하락함
- 철광석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슬래브와 빌렛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임

(단위: 만 원/톤)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57.01	157.01	157.09	147.38	148.29	142.05	142.05	149.92	140.91	149.41	138.80	139.51	139.51	0.0	-11.1
빌렛	126.70	125.47	125.55	131.97	123.97	121.13	121.13	127.74	118.79	128.35	118.26	121.21	121.21	0.0	-4.3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7.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7.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철강업계 철근생산 중단 및 구조조정 병행⁴⁰⁾⁴¹⁾

-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하절기 정기보수 시점을 활용해 재고를 조정하고 적자판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임**

 -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며, 국내 최대 생산시설이 '72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됨
 - 현대제철 인천공장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보수에 돌입하면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며, 사실상 감산이 목적인 보수임
 - 앞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4월에 감산을 위해 한 달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며, 지난달부터 포항2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황임
-  **철강업계가 가동을 중단하는 배경에는 업황 악화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침**

 - 지난해 국내 총 착공 면적은 7,931만 m²로 '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67% 수준에 불과함
 - 4~5월 원도급공사 계약액은 각각 3.5%, 10.5% 감소했으며, 신규 공사 감소로 철근 수요가 위축됨
 - 올해 예상 철근 수요는 673만 톤으로, 생산능력 1,246만 톤 대비 수요 절반 수준에 그침
-  **철근 가격 반등에도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기요금의 핵심 변수임**

 - 섯다운에 따른 수급 조정 영향으로 6월 이후 철근 유통가격은 톤당 68만 5,000원에서 74만 원으로 반등했으나, 고철값과 전기료 등을 포함한 제조회가는 톤당 75만 원임
 - '22년 5월 철근 가격이 톤당 11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은 수익성 확보엔 역부족임
 - 업계 전반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정부 감면 지원이 필요하며, 환경 규제 강화와 맞물려 전기료 인상 지속 전망이어서 에너지 요금 보조 등 산업 경쟁력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업계는 생존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비핵심 자산 정리를 진행하고 있음**

 - 포스코그룹은 고부가 전략 전환과 함께 자산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 장가항 제철소 지분 82.5%를 칭산그룹에 4,000억 원에 매각함
 - 적자 누적 자산 외에도 베트남 몽중2 석탄발전소, 피젠오케미칼 지분 매각 등으로 9,500억 원을 확보함
 - 현대제철은 포항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섯다운과 구조조정 병행하며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0) 서울경제TV(2025.07.15.),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7150113\(2025.07.23. 검색\)](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7150113(2025.07.23. 검색))

41) 페로타임즈(2025.07.14.),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0\(2025.07.23. 검색\)](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0(2025.07.23. 검색))

3 포스코, 아람코 플랜트에 강재 납품으로 고부가 에너지 시장 진출 가속화⁴²⁾

- ▶ 포스코는 사우디 아람코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최초로 공급함
 -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는 가스 처리량을 1.6배 확대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임
 -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Hydrogen Induced Cracking) 저항성을 가진 강재이며 해당 제품은 극한 환경에서 석유·가스 설비에 활용됨
 - 기존엔 유럽 철강사가 독점하던 시장으로, 아람코는 국제 규격(NACE TM0284) 이상 수준의 품질과 인증을 요구했으며, 아람코 플랜트용 HIC 강재 공급은 포스코를 포함해 전 세계 9개 철강사만 가능함
- ▶ 고부가 에너지 강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전방산업 파급 효과로 이어짐
 - 이번 공급으로 포스코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었으며, 국내 철강업계 위기 속 수출 성과로 평가됨
 - 배관·압력용기·피팅 제작사는 현대스틸파이프, 세아제강, 범한메카텍, 태광 등 국내 기업이 맡으며 국산화를 달성하였으며, 후방산업의 기술 고도화가 전방산업 수요로 연결되는 등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포스코는 고관세·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판로 확대와 경쟁력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2) 쿠키뉴스(2025.07.15.),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7140192>(2025.07.23. 검색)

11) 자동차



1 '25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친환경차 최초 50% 돌파, 수출 감소, 생산 감소⁴³⁾

- 5월 내수는 전월 대비 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141,865대를 기록함
 - 월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국산차는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으나, 테슬라 신차효과(+57.7%)에 힘입은 수입차(+13.1%) 증가로 전체 내수는 소폭 증가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38.3% 증가한 73,148대로 전체 내수의 51.6%를 차지하여 역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함. 국산 신차효과(캐스퍼EV, 무쏘EV, EV4 등)로 전기차 60.1%, 하이브리드 30.5% 증가함
- 5월 수출은 전월 대비 0.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246,423대를 기록함
 - 중견 3사의 수출 증가세와 유럽지역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감소로 인한 현대·기아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침
 -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25.0%) 증가 추세가 전기차(-13.5%) 감소를 보완하여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한 74,746대를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0.3%를 차지함
- 5월 생산은 전월 대비 6.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358,969대를 기록함
 - 국산차 내수 부진과 현대·기아의 수출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함
 - 현대는 6.0% 감소한 반면, 기아는 3.8% 감소했으며, 한국지엠은 0.4% 증가, KG모빌리티는 7.0%, 르노코리아는 12.6% 증가함

단위 : 대, 백만 \$, %

'25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5월
내수	1,626,245	141,313	660,651	150,622	141,865	680,786	-5.8	0.4	3.0
(국산차)	1,344,432	115,095	557,694	127,516	112,200	563,051	-12	-2.5	1.0
(수입차)	281,813	26,218	102,957	23,106	29,665	117,735	28.4	13.1	14.4
OEM 수입	20,318	2,117	3,313	1,642	1,506	7,701	-8.3	-28.9	132.4
수출	2,782,612	255,594	1,214,836	247,032	246,423	1,167,184	-0.2	-3.6	-3.9
(완성차 수출액)	70,786	6,487	30,801	6,526	6,201	30,022	-5	-4.4	-2.5
(부품 수출액)	22,533	1,835	9,557	2,028	1,663	8,975	-18	-9.3	-6.1
생산	4,128,242	372,814	1,791,715	385,624	358,969	1,757,871	-6.9	-3.7	-1.9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5.06.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5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5.07.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3)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5.06.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5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5.07.24. 검색)

2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 위해 미국 투자 검토, 일본 방식 벤치마킹⁴⁴⁾

한국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이 미국과 전 날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방식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통한 관세 인하를 모색하는 전략임
-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달성함

미국은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에 제시한 것과 같은 4,000억 달러(약 548조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과의 협상도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도 포함될 수 있음

일본의 15% 관세율 합의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협상 타결이 시급함

-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음
- 허드슨 연구소 윌리엄 추 연구원은 미일 합의가 한국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4) 매일경제(2025.07.24.), [https://www.mk.co.kr/news/economy/11376197\(2025.07.24. 검색\)](https://www.mk.co.kr/news/economy/11376197(2025.07.24. 검색))

3 현대차, 미국 관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 15.8% 감소, 분기 최대 매출에도 수익성 악화⁴⁵⁾

-  현대차가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48조 2,867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3조 6,016억 원을 기록함
 - 미국에서의 판매량은 25만 6,000대로 전년 동기(23만 2,000대) 대비 10.3% 증가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25% 품목 관세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 2분기 관세 여파로 줄어든 이익이 8,200억 원에 달해 전체 영업이익 감소분 6,70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함
-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을 동결했으나 관세 인상으로 이익이 직접적으로 감소함
 - 고환율 환경과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5% 관세 부담이 수익성 개선 효과를 상쇄함
 - 4월부터 적용된 25% 품목 관세로 인해 현대차의 미국 사업 수익성이 크게 타격을 받음
-  미-일 자동차 관세 15%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 열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짐
 - 기존 한미 FTA 무관세에서 한국산 25%대 일본산 15%로 관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됨
 - 미국에서 일본차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는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 될 전망이다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조선일보(2025.07.24.),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5/07/24/TSUXDXJ22FHENDDZFFGX64CIS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5.07.24. 검색\)](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5/07/24/TSUXDXJ22FHENDDZFFGX64CIS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5.07.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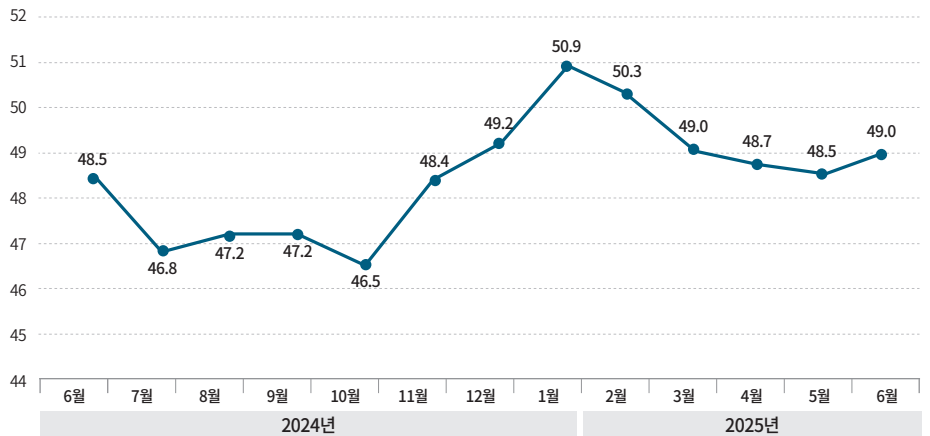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25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49.0으로 전월(48.5) 대비 소폭 상승함⁴⁶⁾

- 이 는 시장의 예상치(48.8)를 상회하는 수치로 제조업 경기가 네 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수축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됨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산지수는 50.3으로 전월(45.4) 대비 큰 폭으로 반등하여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재고지수도 49.2로 전월(46.7)보다 개선됨
- 반면, 신규주문(46.4), 고용(45.0), 수주잔고(44.3)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며 수축세가 심화됨
- 또한, 물가지수는 69.7로 전월(69.4) 대비 소폭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세 영향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급업체 배송지수는 54.2로 전월(56.1)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배송 지연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며, 입항 지점에서의 물류 병목현상이 해소되었음을 시사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7.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6) Trading Economics(2025.07.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5.07.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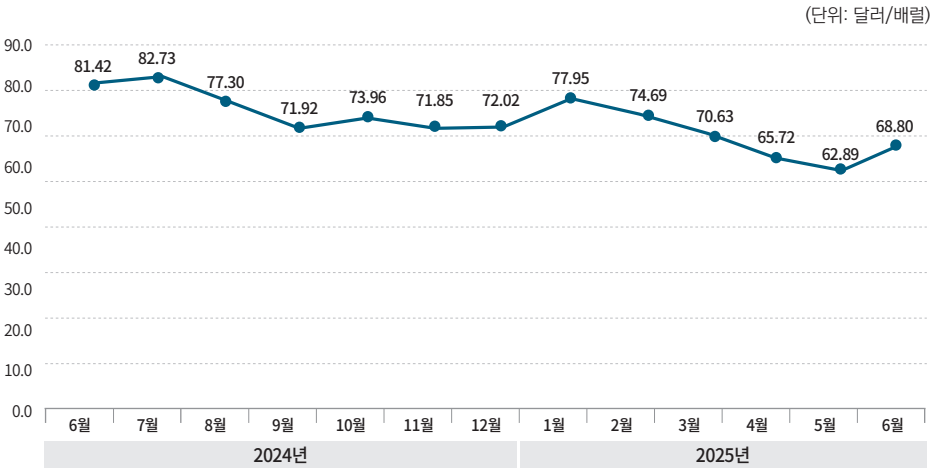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6월 국제유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

- ’25년 6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9.4% 상승한 68.80달러를 기록함
- 올해 1월부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유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69.26	8.7	-16.1
Brent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69.80	9.0	-15.9
WTI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67.33	10.5	-14.4
평균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68.80	9.4	-15.5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7.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SK이노베이션, 보령LNG터미널 지분 매각 추진⁴⁷⁾

- SK이노베이션이 SK온 자금 지원을 위해 보령LNG터미널 지분 50% 매각 추진 중에 있음
 - 보령LNG터미널은 '13년 SK E&S와 GS에너지가 50:50으로 설립한 합작사로, LNG 저장 및 기화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난해 기준 매출 2,560억 원, 영업이익 939억 원,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현금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외국계 IB를 통해 매각 진행 중이며, 예상 매각금액은 3,000억~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SK-GS 양측은 새 사업 파트너 선정 방식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GS가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임
 - SK는 경쟁 입찰 방식을 선호하고 GS는 우호적 재무적투자자(FI)가 직접 낙점하길 희망하며 파트너 선정권을 주장하고 있음
 - GS에너지는 FI가 지분 인수 후 일부를 재매입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SK는 보유 지분 매각과 별개로 계열사와의 장기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 SK의 협상력이 낮아지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한국경제신문(2025.06.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73965r>(2025.07.23. 검색)

3 관세청, 부산 석유저장시설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⁴⁸⁾

관세청이 부산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유 생산 및 북극항로 연료공급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음

-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국내외 석유제품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비과세 친환경 선박유 제조가 가능해짐
- 제조된 선박유는 국제 무역선 및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산항이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에너지 공급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관세청장은 7월 9일에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찾아 석유 저장시설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유 시장 선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부산일보(2025.07.09.),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4622?type=main\(2025.07.23. 검색\)](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4622?type=main(2025.07.23.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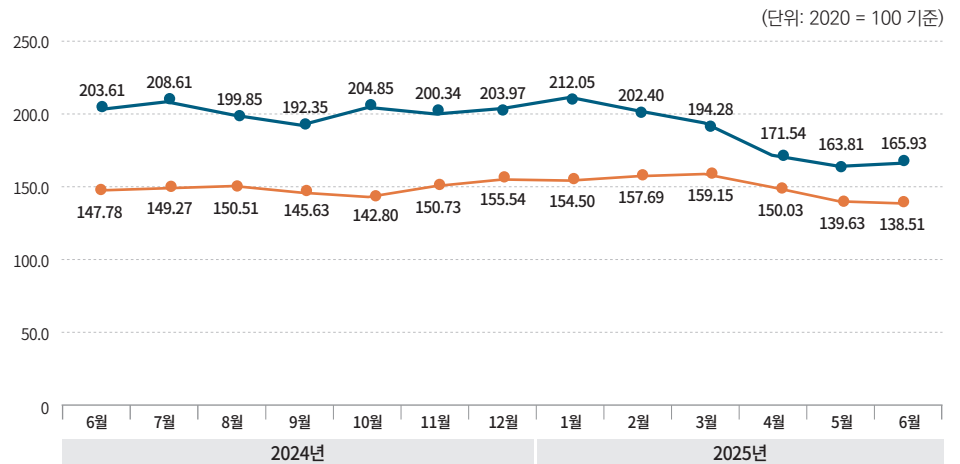


① '25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상승, 에틸렌 하락

6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3% 상승한 165.93p, 에틸렌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38.51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시작된 1월 이후 동반 하락하였으나 6월에 소폭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도 3월까지 상승했으나 하락 전환함
- 기간 유가가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월부터 달러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165.93	1.3	-18.5
에틸렌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39.63	138.51	-0.8	-6.3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7.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7.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DL이앤씨, 에쓰오일 사힌 프로젝트에 1만 톤급 초대형 모듈 설치⁴⁹⁾

 DL이앤씨가 에쓰오일이 추진 중인 사힌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PAR(Pre-Assembled Pipe Rack) 모듈 17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함

- 원료 및 생산품 배관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PAR 모듈은 플랜트 운영의 핵심 인프라이며, 가장 큰 모듈은 길이 47m, 폭 22m, 높이 36m 규모로, 총 무게는 약 1만 톤에 달함
- PAR 모듈은 전남 목포에서 제작 후 울산 온산 산단까지 정밀 운송 및 설치 작업을 수행했으며, 고정밀 제작·운송·설치 과정에 3D 스캐닝과 해상운송 전문 기술 등이 적용됨
- 바지선에 실려 울산신항에 도착한 PAR 모듈은 모듈 트랜스포터(SPMT)로 야간시간대 2km 이동하는 등 초저속 주행으로 진동을 최소화하며 설치를 완료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매일경제(2025.07.0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61697>(2025.07.23. 검색)

3 석유화학업계,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탄 도입 규제 정비 촉구⁵⁰⁾

-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에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료 다변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대부분 나프타 기반 NCC 설비 가동 중이나, 국제유가가 연동되어 있어 공급 가격이 불안정하고 비용이 높아 원가 절감이 쉽지 않음
 - 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인 톤당 250~300달러 대비 낮은 100달러대에 머물고 있어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셰일가스 붐 이후, 에탄이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되면서 미국 등은 저가 에탄 기반 ECC 설비를 확대 중이며, 국내 기업도 유사한 전략 추진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에탄 도입은 법적 불확실성, 인프라 규제, 항만·저장시설 등의 제도 미비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에탄이 고압가스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이 불분명하여 법령 정비 필요하며, 도시가스사업법상 LNG를 에탄 저장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LNG 저장탱크 활용이 불가함
 - 항만기본계획상 에탄은 화학물질로 분류돼 기존 석유제품 부두에서 하역이 불가하여 계획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이미 미국에 ECC 설비를 구축해 해외 원료 조달에 나서는 등 국내 규제 회피 사례 발생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이데일리(2025.07.0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42231896&mediaCodeNo=257&OutLnkChk=Y\(2025.07.23. 검색\)](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42231896&mediaCodeNo=257&OutLnkChk=Y(2025.07.23.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7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